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를 건지리라”**  
**테네시주 목사 자택서 괴한이 40여 발 총기난사...인명 피해 無**



미국 테네시주 마운트 줄리엣에 위치한 글로벌 비전성경교회의 그렉 로크 목사가 “괴한이 자택에 총기를 난사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가족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윌슨 카운티 보안관실 스콧 무어 대위는 “부상자는 없었으며,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고 지역 매체인 테네시안에 밝혔다.

무어 대위는 경찰이 지난 3일 밤 10시 30분경 로크 목사의 자택에 출동해 집, 차고, 차량 주변에서 30-40개의 탄피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로크 목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장 사진을 공유하며, 총격 사건이 담긴 보안 카메라 영상에 대해 “정말 끔찍하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새벽 2시인데, 지난 3시간 동안 우리 집은 온통 범죄 현장이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자동 무기를 든 한 광인이 집, 차고, 트럭에 탄창을 모두 발사하고, 정확히 1분 뒤에 우리가 차고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의 소리는 정말 끔찍하다. 형사들이 오늘 밤에도 한동안 현장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 중 한 명만 집에 있었고, 다행히도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있지 않았다. 마지막 사진에서 보듯이, 총알 하나가 막내딸 침대 머리판을 뚫고 베개에 박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격 이후 자신과 가족이 보안 요원에 의해 호텔로 호송됐으며, 시편 91편을 인용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언급했다. 로크는 “중요한 단 한 가지는 시편 91편이 진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이다. 오늘 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2015년부터 페이스북에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한 로크 목사는 2016년 4월 22일 게시한 영상으로 하룻밤 사이에 보수층의 유명 인사로 떠올랐다. 그 영상에서 그는 남성의 여성 화장실 및 탈의실 출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낙태와 미국 최대 낙태클리닉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앞서 지난 부활절에는 한 남성이 그의 교회 근처에서 성경 200여 권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로크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 “이번 사건은 기독교가 공격받고 있는 증거”라며 “미국에서 기독교가 그 어느 때보다 공격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강조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데일리굿뉴스 종합).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시편 91:14-15)**

하나님,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로크 목사님과 가족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환난의 때에 부르짖는 기도예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여호와를 굳게 붙들게 하소서. 미국의 교회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함께 깨어 일어나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박해를 이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미국 땅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와 선하심을 맞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7년간 알카에다 인질이었던 선교사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다”**



이슬람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단체에 인질로 잡혀 있던 한 기독교 선교사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셨다”고 고백했다. 켄 엘리엇(89. Ken Elliott) 박사는 인질로 잡혔을 당시 극한의 더위와 추위, 전갈, 괴혈병에 시달리며 7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대답했다. 켄과 그의 아내는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서 수십 년간 의료 선교를 하며, 환자가 어떤 신앙을 가졌든, 피부색이 어떻든, 혹은 지불 능력이 있든 없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품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러한 헌신 덕분에 그들은 자신들을 서양에서 온 외부인으로 보지 않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그들이 납치되었을 때, 무슬림 대다수를 포함한 현지인들이 분노를 표했다. 켄의 아내 조슬린은 몇 주 후 석방됐지만, 켄은 루마니아 출신의 동료 인질인 줄리안 게르곳과 함께 남겨졌다.

켄은 ABC 뉴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9개월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어떻게 누군가가 9개월 동안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7년 4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열악한 식단으로 인해 그의 건강은 악화됐고, 비타민 C가 부족해 괴혈병에 걸려 다리가 부어오르며 걷지 못하게 되고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렸다.

켄은 영국의 복음주의 집회인 케스윅 대회(Keswick Convention)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괴혈병 환자를 딱 한 명 봤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고 말했다.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납치범들은 켄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켄은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사막에서의 길고 외로운 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켄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 나는 결코 개종하여 그분을 모욕할 생각이 없었다. 심지어 개종하는 척하는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묻자, 켄은 “절대 없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다”고 답했다. 2023년 5월 그의 석방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에 불확실하지만, 켄은 전혀 미스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석방된 유일한 이유는 몇 백, 아니 몇 천 명의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맞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편 34:6-8)**

하나님, 7년간 테러 단체에 의해 납치되었던 켄 엘리엇 선교사님을 열악한 환경과 질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한,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도우실 능력이 있는 주님께 열방의 교회가 인내로 기도하게 하셔서 친히 도우시고 구원하신 주의 선하심을 온 열방에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빛과 소금이 되었던 엘리엇 선교사님과 같이 어둠의 포로 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교회와 선교사들이 복음과 기도로 부르짖어 생명의 빛 되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 “우리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필리핀의 차별금지법, 종교 자유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



최근 필리핀에서 평등을 증진하고 소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된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이 법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직장, 교육 기관, 공공 서비스에서 포용성을 증진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복음주의교회협의회(PCEC)를 비롯한 몇몇 종교단체와 지도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하고 표현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과 관련된 조항이 그들의 깊은 종교적 신념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PCEC와 여러 종교 단체는 이 법이 전통적 신념을 옹호하고 가르칠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소외된 집단을 보호한다는 목표는 지지하지만, 법의 일부 조항이 특히 결혼, 성별, 성에 관한 핵심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CEC의 전국 책임자인 노엘 판토자 주교는 “우리는 어떤 형태의 차별에도 반대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보호해야 한다”며 “이 법이 종교 기관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타협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양심의 문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필리핀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 유대교 및 원주민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종교 공동체의 대표자들도 이 법이 그들의 기본적인 교리와 관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과 입법자들은 종교 단체들이 그들의 교리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에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종교 단체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 기관의 권리와 차별금지 보호가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PCEC를 비롯한 지지자와 비판자들은 종교 지도자, 국회의원, 시민 사회가 법 시행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린도후서 10:3-5)**

하나님, 평등과 자유를 위한다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앙의 자유와 전통적 신념을 지키는데 위협이 된다는 종교단체들의 목소리에 필리핀이 귀 기울여 돌이키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근심과 우려 대신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며, 어떤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소서. 그리하여 진리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필리핀의 모든 영혼이 보게 하시고, 이 법을 둘러싼 수많은 주장이 잠재워지고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옵소서.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요 방패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과도정부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기독교인 위협...집에 십자가 표시**



방글라데시에서 총리 퇴진 후, 칼을 휘두르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집에 십자가로 표시하고 있다고 페이스와이어가 최근 전했다. 박해 감시 단체 국제기독교연대(CSI)는 방글라데시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기독교인들과 다른 소수 종교 신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몇 주 동안 공무원 할당제를 두고 개혁을 요구하는 유혈 시위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방글라데시의 세이크 하시나 총리가 지난달 5일 사임하고 인도로 피신해, 군부가 과도정부를 구성했다. 이에 CSI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조엘 벨드캠프는

“그 이후 일주일 동안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힌두교도, 기독교인, 불교도들이 이슬람 단체가 조직한 폭도들의 공격을 받는 폭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는 대부분이 무슬림인 국가라는 점에서 이러한 혼란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벨드캠프는 “세속주의와 관용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전복되면서 이슬람주의자들과 지하디스트들의 폭력이 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벨드캠프는 국제기독교연대의 프로젝트 협력자가 최근 방글라데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협력자는 말 그대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다. 과도정부가 구성되고 5일쯤 지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의 집에 몰려와 검과 총을 들고 그의 아내와 그를 위협했다.

그들은 “이제부터는 100%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며, 힌두교도와 기독교인을 위한 자리는 없다. 떠나야 한다”고 말해 협력자는 방글라데시를 떠나게 됐다. 그는 도망치는 동안, 자신의 이웃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의 집들이 십자가로 표시돼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는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구분해 추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 장면은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십 개의 교회가 폭격당했으며, 모든 기독교 학교는 폐쇄됐다. 그리고 힌두교 사원들도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공격받았다.

벨드캠프는 “무슬림들은 교사들에게 이슬람법에 따라 여성들이 착용해야 하는 히잡을 써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과 교사들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구성원들로 대체되고 있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사무엘 하 22:3-4)**

하나님, 이슬람 극단 주의자들이 정치적 혼란을 틈타 종교적 박해를 가하여 방글라데시를 무슬림 국가로 만들려는 이들의 악한 생각을 꾸짖으시고 폭력과 위협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검과 총으로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주님께서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주시고, 박해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슬람 극단 주의자들의 어두운 심령에 복음의 빛을 비추사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음이라”**  
**소말리아서 알샤바브 18년째 활동...기독교인 위험 악화**



소말리아에서 18년째 활동 중인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위험이 악화됐다고 에반젤리컬포커스가 최근 전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2006년 설립 이후 2012년 알카에다와 연계하면서 활동 범위를 확장했다. 이들은 여전히 소말리아와 인접 국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리아법을 기반으로 지역 통제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 전문가들은 알샤바브가 다른 극단주의 단체보다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로 소말리아와 지역 당국을 대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전문가인 스티그 자를 한센은 온라인 매체 ‘더 컨버세이션’에 알샤바브는 여전히 7,000명에서 1만 2,000명의 민병대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샤바브가 생존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는 소말리아에서 서방 국가들이 평화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것이 지목된다. 미국과 유엔 등의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알샤바브는 서방이 제공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신뢰할 수 없다고 선전해 왔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소말리아 내 민족 간 갈등이 빈번한 가운데, 알샤바브는 강력한 중재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력을 강화해왔다. 알샤바브의 활동으로 소말리아 기독교인의 상황은 크게 악화했다. 소말리아 정부는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정부는 알샤바브의 2인자였던 ‘무크타르 로보우’를 종교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소말리아는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2023년, 2024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2년 연속으로 2위를 차지했다. 오픈도어는 “소말리아에서 교회 활동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위험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말리아의 2명의 기독교인은 스페인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부분의 소말리아 기독교인은 지하교인들이며 박해받는 공동체다”라고 증언했다.

소말리아 성서협회에 따르면, 소말리아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은 17만 1,000명 이상이며, 그중 85.6%는 복음주의자, 12.5%는 가톨릭 신자이다. 주변 국가로 이주한 소말리아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은 케냐에 5,649명, 에티오피아에 8,917명, 지부티에 3,760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좇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사무엘상 25:29)**

하나님, 18년째 활동하는 알샤바브의 세력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협이 더해가는 이들의 악한 권세를 파하여 주십시오. 거짓된 종교에 속아 죄에 대한 자각 없이 생명을 해하는 알샤바브에게 크고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을 계시하시어 엄위한 주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교회를 통해 믿는 자에게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모두가 듣게 하시며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놓인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소말리아를 새롭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유럽, 태풍 ‘보리스’ 강타 24명 사망·체코서 피해 속출

중동부 유럽을 강타한 태풍 ‘보리스’로 인해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지에서 홍수와 호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체코에서 4, 5번째 사망자가 발생해 사망자 수가 24명으로 늘었다고 뉴스1이 19일 AF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18일 체코 경찰 대변인은 8명이 여전히 실종 중이라고 밝혔다. 4번째 사망자는 체코 동북부 코빌라나드 비드나브코우 지역의 여성 주민으로 홍수로 파괴된 주택 근처에서 발견됐다. 태풍의 여파로 지난 13-14일 체코를 휩쓸고 지나간 폭우로 인해 체코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체코 북부와 동북부 지역에서는 강물이 넘쳐 주택가가 파괴되고 도로와 철도 교통이 마비됐으며 동북부 지역 6만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체코 국경 지역인 크로노프에서는 전체 80%가 침수되기도 했다. 체코 동북부의 모라비아-실레시아 지역에서는 1만 5,000명이 대피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이사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 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시편 84:11-12)**

하나님, 유럽 중동부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침수와 실종, 사망자 발생으로 난국에 처한 나라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복구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육체의 터가 무너진 이들에게 온전히 주를 바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상실한 유럽이 지금 이때 주님께 돌이켜 영혼의 반석 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럽 교회를 통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 십자가의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되게 하소서.

### ▲ 유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민간인 5,350명 살해”

미얀마 군사정권의 민간인 살해·체포가 급증하는 가운데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숨진 민간인이 5천 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18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을 인용,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군부가 살해한 민간인이 5,350명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와 목격자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체포된 민간인은 약 2만7,400명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군부는 군정 체제에 반대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며 끔찍한 고문이 만연하는 등 법치 공백 속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인 부모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린 자녀를 대신 체포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천장에 매달거나 뱀이나 곤충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등 고문과 학대 사례도 소개됐다.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체 위에서 무릎을 꿇거나 기어가게 하고, 쇠막대나 소총 개머리판, 가죽끈 등으로 구타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브리서 12:14)**

하나님,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숨지거나 체포되었다는 참혹한 소식 앞에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미얀마를 다스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여, 자신의 탐심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군부를 꾸짖어 주시고 사탄의 악한 권세를 파하여 주십시오. 분쟁과 혼돈으로 어두운 이 땅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사 주를 보지 못한 자들이 빛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박해받는 미얀마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이 더욱 전파되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소서.